

보도시점 :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3. 3. 28.(화)

정부는 GTX-A 수서~동탄 '24년 상반기, 운정~서울역 '24년 하반기 개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.

<보도 내용 (디지털타임스, 3.27) >

- ◈ GTX-A 공사기간 6개월 연장... 내년 6월 개통 못한다.
- 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 업무보고(1.3)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, GTX-A노선 「수서~동탄(재정)」은 '24년 상반기, 「운정~서울역(민자)」은 '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,
 - 수도권 교통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인 GTX-A가 국민께 약속드린 시기에 적기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 중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.
- □ 아울러, 기사 본문에서 언급된 개통 시기는 시공 사업단의 설명 과정에서 제시된 것으로, 현장에서 이와 관련한 정부 측의 직접적인 발언이 없었음 에도 시공 관계자의 입장을 빌려 정부 측 발언인 것처럼 기사화된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.
 -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혼선을 유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안재혁 (044-201-3964)
		담당자	서기관	육인수 (044-201-3963)
			사무관	이상욱 (044-201-3961)



